

신문 만평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은폐현상에 대하여*

－ 에코의 수사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이동형** · 안정오***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신문 만평 분석
- I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신문 만평은 사회비판적 풍자와 은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이데올로기 은폐’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이런 시각을 토대로 신문 만평을 ‘이데올로기의 조작과 은폐’라는 기호학적 연구를 통해 정치·사회적 비판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만평을 움베르토 에코의 수사학적 작업으로 ‘이데올로기의 조작, 이데올로기의 폭로’라는 사회비판성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기호학적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신문 만평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2016년 5월 5일자, 18일자, 25일자 만평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한국에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을 표본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텍스트로 위에 나온 세 개 일자만 대상으로 한 것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

* 본 논문은 2017년도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특성화연구비로 수행된 것임.

** 주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독어학 전공 교수

불어 5월 25일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 만평의 선별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풍자와 과장 외에도 예코의 기호학에서 말하는 수사학의 조작 3단계인 이데올로기적 발상·발견, 이데올로기적 배열·배치, 코드의 전환인 표현술과 은유와 환유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었다. 그러나 만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예리한 은폐현상은 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코가 말한 수사학적인 배치나 배열 혹은 단어교체를 통한 예리하고 깊숙한 이념적 은폐는 한계가 있는 듯이 보였다. 만평은 항상 그림을 언어와 병합하여 표현하기에 그림으로 인한 은폐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만평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데올로기의 발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예코가 강조한 ‘문화체계 내의 은폐된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그 결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비판이자 사회적 실천’의 가치를 찾아보는 의의를 갖고 있다.

열쇠어 : 신문만평, 수사학, 기호학, 이데올로기, 은유, 환유

I. 들어가는 말

신문은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문자텍스트와 사진텍스트와 그림텍스트로 제공하는 매체이다.

문자텍스트는 신문 기사의 대표적 형식으로 크게 기사와 칼럼으로 나뉜다. 사진텍스트는 사진기자가 취재한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 그 자체다. 그림텍스트에는 기사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삽화, 한 칸으로 구성된 만평, 그리고 네 칸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만화가 있다. 한 칸짜리 만평과 네 칸짜리 만화는 그 사회의 이슈 또는 정치적 이슈를 소재로 한 시사성을 가지고 있어 그림과 짧은 언어텍스트로 구성된 기사라고도 한다. 일부 신문에는 시사성을 담지 않은 극화 성격을 지닌 연재만화를 싣기도 한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 중심의 직설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의미 전달에 있

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물론 칼럼은 필자의 의도에 따라 풍자와 은유를 담은 글의 구성이 가능하나, 풍자와 은유가 칼럼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사진과 그림은 구성 자체가 암시와 은유, 풍자가 주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특히 한국 신문에서 만평은 기사로 직접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을 풍자와 은유 등 보다 폭넓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 신문 만평의 정치·사회적 비판으로 나타난다. 한국 신문 만평의 정치·사회적 비판은 정권의 뒤바뀔과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능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문이 구성하는 뉴스 형태가 기사와 사진, 만평으로 그치지 않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뉴스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뉴스 형태 속에서도 신문 만평이 가지는 가치는 사회비판적 풍자와 은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이데올로기 은폐’¹⁾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뉴스 형태 다양화시대에 최근의 신문 만평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향후 신문 만평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의미가 있다. 더 나가서 이 연구에서 ‘이데올로기의 조작과 은폐’라는 기호학적 연구를 통해 정치·사회적 비판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어 보면 크게 시사만화 자체의 역사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소통구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여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시사만화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진다.

신문 만평은 우리 사회에서 신문의 등장 초기부터 함께 해 왔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 되지만 연구의 폭과 다양성은 역사성에 비해 넓지 못

1)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일반 기호학 이론』, 열린 책들, 2009, 450~452쪽.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구 전공자도 언론학과, 정치학과, 국문학과, 그리고 미술 전공의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이 대부분이다. 언론학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정치학과에서는 시사만화의 주요 주인공인 정치인의 캐릭터 분석을,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시사만화가 구성하는 지문과 말풍선 등 언어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구성 분석에 치중해왔다.

권유리는 「시사만화의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2000년)²⁾에서 시사만화의 효과적인 표현의 문제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은유적 표현의 타당성을 다루었다. 그는 여기서 은유란 수사학에서 쓰여지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일상적인 사고체계를 확장하고 상상력을 신장시키는 광의의 은유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양태영은 「시사만화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1999년)³⁾에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시사만화의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현실비판, 웃음유발 등을 달성하는 추론 과정을 분석했으며, 손상익은 「한국 신문 시사만화사 연구」(2004년)⁴⁾에서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역사적 변천사와 함께 풍자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고찰했다. 서옥란은 「시사만화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2003년)⁵⁾에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시사만화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연구, 기호학적 연구 성과를 보였으며, 시사만화가 어떻게 통보적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했다. 이성연은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연구」(2005년)⁶⁾에서 시사만화의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의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상호텍스트성으로 고찰하였다. 강형구·탁진영은 「시사만화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

2) 권유리, 「시사만화의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3) 양태영, 「시사만화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5) 서옥란, 「시사만화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인문학연구』 30, 2003, 197~223쪽.

6) 이성연,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46, 2005, 381~408쪽.

구」(2006년)⁷⁾에서 시사만화가 강력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대상으로 일간신문의 시사만화에 대한 내용분석과 프레이밍분석을 시도했다. 김상돈은 「오프 라인과 온 라인 매체의 시사만평에 관한 연구」(2007년)⁸⁾에서 시사만평의 역사적 변천 하에 오프 라인 매체에서 온 라인 매체로 흘러가는 과정 속의 의미를 분석했는데 이 역시 시사만화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 비중을 크게 잡았다. 손세모돌은 「한 칸 만평과 네 칸 시사만화 비교 연구」(2008년)⁹⁾에서 한 칸 만평과 네 칸 시사만화들의 언어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의존도를 검증했다. 김정연과 박정희는 「시사카툰의 기호적 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¹⁰⁾에서 카툰을 하나의 담화체제로 인식하여 화용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기호학의 분석모형을 적용해 의미의 심층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은우는 「한국의 신문시사만화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2011년)¹¹⁾에서 한국시사만화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시사만화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에 나타나는 의소소통기능과 표현에 대해 분석, 구조적 특징을 분석했다.

위의 연구사례와 같이 시사만화와 만평에 대한 연구는 만평 자체가 가진 사회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분석,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진행할 에코의 수사학적 접근을 토대로 한 연구는 기호학적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신문 만평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 7) 강형구, 탁진영, 「시사만화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6, 5~36쪽.
 - 8) 김상돈, 「오프 라인과 온 라인 매체의 시사만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9) 손세모돌, 「한 칸 만평과 네 칸 시사만화 비교연구」, 『국제어문』 44, 2008, 5~45쪽.
 - 10) 김정연, 박정희, 「시사카툰의 기호적 해석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3, 2010, 41~51쪽.
 - 11) 이은우, 「한국의 신문시사만화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고의 연구는 몇 개의 특정한 신문 만평을 연구대상 텍스트로 정하였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러 신문들의 만평을 다 다룬다는 것은 무의미하여서 특히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2016년 5월 5일자, 18일자, 25일자 만평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한국에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을 각각 그런대로 표본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¹²⁾

연구텍스트로 위에 나온 3개 일자만 대상으로 한 것은 5월 중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5월 25일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연구 목적은 신문 만평이 함유한 기호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만평 자체에 대한, 즉 시대적 변천이라든가 만평의 역사성, 정권에 따른 만평의 변화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신문 만평은 그 구성요소로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 그리고 특별한 부호로 구성되어 내용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하다. 기호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상호텍스트성 분석이나 텍스트언어학 분석, 롤랑 바르트의 분석모형 등을 통한 연구방법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만평을 텍스트와 그 구조로 분석하기 보다 움베르토 에코의 수사학적 작업으로 ‘이데올로기의 조작, 이데올로기의 폭로’라는 사회비판성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최대한 연구범위를 좁혀 수사학적 작업과 이데올로기와 코드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만평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기호학이 이데올로기의 폭로의 수단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12)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현재 만평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코의 대중문화인식과 기호의 해석

에코에 의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예술 형식은 인식론적 은유 (Metafora Epistemologica)로 간주된다. 예술은 고유의 형식을 통해 나름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소한 예술형식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그 시대의 과학, 어쨌든 문화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본다.¹³⁾

에코의 기호학 이론과 가설들은 대중문화 현상들에 견주어 검증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의 소비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후의 해석 이론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것은 기호학이 순수 이론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응 관계에서 재조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⁴⁾

에코는 대중문화와 예술을 대표적인 문화 현상으로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는 기호학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만화를 실제로 분석하기도 했다. 에코는 “만화는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코드의 존재를 토대로 한,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및 고유의 구조적 요소들을 갖춘 독립적인 ‘문학적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⁵⁾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만화는 체제의 암시적인 교육학을 반영하며, 현행 가치와 신화들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런 만화들의 순환적인 구조는 현실 체제의 정태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¹⁶⁾

퍼스와 마찬가지로 에코도 기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추법을 통한 기호해석을 강조하면서 기호작용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하나로 보았다.

13) 김운찬, 「제2부 이론과 분석 :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문화론」, 『기호학연구』 vol 10, 2001, 200쪽.

14) 김운찬, 앞의 논문, 204쪽.

15) 김운찬, 앞의 논문, 211쪽.

16) 김운찬, 앞의 논문, 212쪽.

인간이 어떤 진술을 들었을 때 가추력에 의해 “그 말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기초 해석 과정이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했다.¹⁷⁾

2. 에코의 기호생산에서 수사학적 작업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로 이루어진 신문 만평을 텍스트언어학적인 접근을 넘어 기호학과 수사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은 신문 만평이 함유한 텍스트가 단순히 텍스트의 전달이 아니라 풍자와 은유를 넘어 사회적 비판을 기호학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는 기호는 어떤 것을 의미함으로써 “어떤 것”을 보증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호가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즉 모든 이해하기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접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해석을 “창조”하는 어떤 행위에서 비롯된다. 의의는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번역되고, 변이된다.¹⁸⁾

또한 에코는 아주 명백한 도상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가령 해골의 상징은 꼭 “독(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깃발에 박혀 있으면 “해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기호의 해석은 다른 것의 동시적 해석 없이는 불가능하다.¹⁹⁾

에코가 수사학적 공식과 이데올로기 관계를 검토하게 된 것은 바르트 의 ‘신화학’(1957)의 영향이 크다. 에코에 의하면 수사학은 섬세한 속임수의 과정이 아니라 많은 논리 외적 조건들에 대한 공개적인 주제가 되는 그럴 듯한 인간 상호 작용의 기술이다.

에코는 『일반 기호학 이론』에서 (1) 어떻게 수사학적 범주들은 기호학 이론에 포함될 수 있는가. (2) 어떻게 과잉 코드화 및 코드전환과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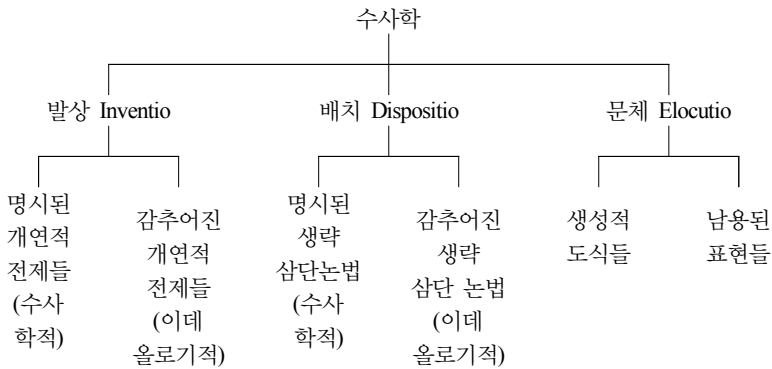
17)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 세상읽기』, 소명출판, 2002, 321~323쪽.

18) Dieter Mersch, 안정오 옮김, 『에코』, 인간사랑, 2006, 140쪽.

19) Dieter Mersch, 안정오 옮김, 앞의 책, 144쪽.

문제들의 상당수가 통상적인 수사학의 범위를 넘어서고 기호학적 방향의 새로운 수사학의 공식화를 요구하는가. (3) 어떻게 <이데올로기들>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기호학적 방향의 수사학에 의해 통제되는가를 증명하고자 했다.²⁰⁾

그는 수사학의 대상들을 요약하고 도식화를 시도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²¹⁾

에코의 이데올로기 조작은 다음과 같이 수사학적 조작 3단계로 나타난다:

이데올로기적 발상·발견(Inventio) : 의미소에 주어진 속성을 부여하면서, 그 의미소에 대해 동등하게 서술될 수 있는 다른 모순적 속성들을 무시하거나 감추는 상황적 선택들을 말한다. 논거 발견은 논리적인 측면과 정감적인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감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 정감적 부분에서 변론가의 인품인 에토스와 청중의 심리적 상태인 파토스가 중요하다. 에토

20)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앞의 책, 425쪽.

21)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앞의 책, 425쪽.

스란 변론가와 청중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관습, 가치관, 습성을 말한다. 이것을 근거로 변론가는 설득에서 중요한 논거를 대고 논증한다. 에코에 의하면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공유한 믿음이나 가치체계와 신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기초한 일련의 기호학적 언명을 이데올로기적 논거발상법이라고 했다.

이데올로기적 배열·배치(Dispositio) : 의미소의 가능한 상황적 선택들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전제로 선택하는 반면, 다른 모순된 전제들, 또는 모순적 결론으로 이끄는 명백하게 보완적인 전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따라서 의미 공간의 모순성을 감추는 논증을 이데올로기적 배치라고 한다. 배열은 정감에 호소하는 감동주기와 이성애 호소하는 알려주기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강조하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고 모순된 전제나 보완적인 전제가 있음은 흐리게 함으로써 모순적인 성격을 감추는 것을 뜻한다.

표현술(Elocutio) : 에코는 1969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다이어트광고를 예로 들어 코드전환의 매커니즘에 기초하는 이데올로기적 설득의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술에 해당된다. 다이어트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설탕이 비만을 유발하고 따라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클러메이트(cyclamate)가 설탕을 대신하였는데 그 사이클러메이트는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그러자 광고 문구는 다시 사이클러메이트를 빼고, 설탕 첨가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설탕이 들어간 모든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었다. 실제 소비자의 인터뷰도 확실한 암보다는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의미 영역에서 고려되지 않는 허구의 함축들을 생성하는 급격한 코드 전환의 전형적인 작업이다.²²⁾

이러한 에코의 수사학적인 방식에 의거한 이데올로기 은폐현상을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2개 신문의 만평을 통해서 밝혀내 보고자 한다.

22)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앞의 책, 441~445쪽.

Ⅲ. 신문 만평 분석

한국 사회에서 신문 만평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자 그 시대의 문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이다. 신문 만평은 일반 만화와 달리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신문 만평은 그 사회의 여론과 이슈를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상징과 은유의 기호물이다. 신문 만평은 시사만화의 하나다. 시사만화는 시사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의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강일구는 그의 책 ‘카툰풍자로 압축시킨 작은 우주’(2000년)에서 “시사만화는 그 시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들을 풍자나 과장, 비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발 혹은 패러디한 카툰”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사만화는 대부분 정치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사만화”라기 보다 “정치만화”라 하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²³⁾

강형구·탁진영도 시사만화의 특성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다며 시사만화가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이미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⁴⁾

시사만화는 수용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시사만화가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제, 이슈 등을 다루는데 직설적 화법보다 풍자나 해학적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시사만화 즉 신문 만평이 일반 만화와 가장 다른 특징이 바로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세모들은 “만평은 한 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나타내야 하므로 네 칸 시사만화보다 더 압축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하고, 네 칸 시사만화는 칸 구조 자체에서 기승전결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만

23) 김진수, 「시사만평에 나타난 정치지도자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쪽.

24) 강형구, 탁진영, 앞의 논문, 7쪽.

평과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한다고 했다.²⁵⁾

만화평론가 최열은 시사만화를 풍자적, 해학적 방법 등을 통해 진정한 삶의 방식과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규정했고, 이규태 역시 시사만화의 필수조건의 하나로 풍자와 해학성을 들고 있다. 특히 이규태는 중압감이나 권태를 동반하지 않고 가볍게 사회의 비리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것을 시사만화의 특징으로 보았다. 그리고 독자(수용자)는 공감을 통한 대리경험, 가상체험, 그에 따른 카타르시스효과도 느낀다고 주장했다.²⁶⁾

에코에 의하면 수사학은 인간 상호작용의 기술인 한 기호학의 대상이다. 에코는 이데올로기가 기호학적인 어떤 메시지인가를 수사학을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순종적이지 못하고 고집이 세다’란 문장은 분명히 이데올로기적 내포를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데는 예비지식이 필요하고 문화적인 환경과 세계관이 필요하다. 에코는 수사학적 장치인 논거발견술(주제 발견), 논거배열술(두괄식이나 미괄식이나), 표현술(은유나 과장 등의 미사여구를 통해 설득하려는 목적)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조작된다고 보았다.²⁷⁾

본 장에서는 실제 2016년 5월 5일, 5월 18일, 5월 25일 신문에 게재된 경향신문, 중앙일보 만평을 분석 사례로 들어 언어텍스트와 그림텍스트로 구성된 수사학적 기호를 분류하고, 언어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종합적으로 구성된 한 컷의 만평에 담긴 수사학적 공식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5) 손세모들, 앞의 논문, 6~7쪽.

26) 김정연, 박정희, 앞의 논문, 45쪽.

27)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앞의 책, 450~561쪽.

1. 2016년 5월 5일자 경향신문 만평



이 신문만평은 어린이날에 대한 비판조의 만평이다. 현실의 이데올로기로 볼 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어야 할 어린이날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슬픈 어린이날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피해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책임지거나 기업체에서 보상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만평은 고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살펴해보면 교묘하게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사학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 발상이 발신자나 수신자의 공통관심인 건강과 안전으로 수렴되어 있다.

수사학적으로 이데올로기 배치는 다른 모순적 결론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 발신자가 일부러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전제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발신자가 옥시살균제에 대한 또 다른 2개 혹은 3개 이상의 부작용들을 제시하는 대신에, 오히려 세탁력의 긍정적인 성능을 제시하여 부정을 강화시키는 대비효과를 위해 두 개의 상반된 전제인 피해와 성능을 대립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미의 모순성을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수사학적으로 대비된 이데올로기는 “살균제 피해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옥시에서 만들어낸 세제는 성능이 좋다”이다.

(옥시) 가슴기살균제 : 옥시 세제 = 피해자 : 정치권 혹은 기업체

이는 수사학적으로 1:1 배치를 통해서 외연적으로 옥시상품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치를 통해 표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신자의 근본적인 의도는 이 대비를 통해서 성능 좋은 옥시세제로 옥시제품을 다 청소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2. 2016년 5월 5일자 중앙일보 만평



이 만평에서는 이데올로기 선정에서 역시 공통관심사인 지배계층들의 문제점이다. 발신자는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표현술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표현과 은폐를 나타내고 있다.

एको는 ‘개’의 의미소와 ‘수도사’의 의미소는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둘 다 충실함을 나타내고, 개는 외적인 보호를 표지하고 수도사는 영적인 보호를 표지하므로 동일한 부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만평에도 에코가 말한 동일한 부류의 은유가 내포되어 있다. 의미소 <정운호>와 의미소 <검찰>은 둘 다 연관성이 없는 의미소이지만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이다. 이를 우

리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만평에서 <정운호>는 브로커와 기업로비를 암시하는 비리연루자로, <검찰>은 전관로비라는 비리연루자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만평은 수사학적인 표현방식인 은유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와 부패의 고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는 고발이 은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은 기호학적으로 볼 때 의미소적으로 동일한 부류의 현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16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만평

	<p>언어텍스트 : 5·18 민주영정, 36주년, 발포명령, 난 안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금지</p> <p>그림텍스트 : 사과는 커녕 발포명령도 부인하는 전두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하는 공권력(정부)</p>
--	--

이데올로기 발상과 표현에서 5월 18일자 신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제 선정은 발신자나 수신자의 공통주제에 대한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된다.

이 만평은 보다 단순하게 사실을 텍스트와 그림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이 되었음에도 사과는 커녕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전두환>과 시대적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직도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금지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것이다. 이를 만평은 고발하고자 한다. 즉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속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만평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데올로기를 왼쪽 아래 탁자에 놓인 “님을 위한 행진곡 금지”라는 문자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어 한다.

이는 기호학적 수사학에서 세 번째 이데올로기표현에 해당하는 환유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거주한다]처럼 이미 습득된 기호학적 판단이 주어지면,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키기 위해 /백악관/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환유는 주어진 문화적 단위의 의미적 스펙트럼의 성격을 토대로 한다.²⁸⁾

이 만평에서는 ‘이스라엘 종족이여 울어라’를 ‘오, 예루살렘이여 울어라’고 하는 것처럼,²⁹⁾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의 민주화 운동의 환유이다. 이러한 기호학적인 환유현상을 통해서 이 만평은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염원을 이데올로기로 은폐해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2016년 5월 25일자 경향신문 만평



28) Umberto Eco, 김운찬 옮김, 앞의 책, 430쪽.

29) Umberto Eco, 김성도 옮김, 앞의 책, 217쪽.

이 신문만평 역시 이데올로기 발상은 지도자의 현실적인 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제안함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 표현의 측면에서 이 만평에서는 상징과 환유로 이데올로기가 표현되고 있다. 그림과 언어로만 볼 때는 상대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위해 의상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면에는 사치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이를 만평은 수사학적으로 상징과 은유 그리고 배치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예코는 백악관=미국대통령을 환유의 한 예로 들었는데 왼쪽 그림에 P는 대통령(President)을 상징하는 환유이다. 이 그림에서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말한 내용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유적 현상인데, 취임선서라는 글자를 대통령이 거꾸로 들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거꾸로’라는 은유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텍스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장들은 사치와 외모지상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선별적으로 다음 4개의 만평을 살펴보았다.:

- 1) 2016년 5월 5일자 경향신문 만평
- 2) 2016년 5월 5일자 중앙일보 만평
- 3) 2016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만평
- 4) 2016년 5월 25일자 경향신문 만평

이 연구를 위한 날짜와 신문의 선정은 근거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일자에 나온 만평에서 우리는 만평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수사학적으로 은폐되어 나타나는가를 표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래서 1) 2016년 5월 5일자 경향신문 만평의 분석결과에서는 이데올

로기가 배열의 변화와 대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2016년 5월 5일자 중앙일보 만평에서는 의미소의 은유현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었으며, 3) 2016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만평과 4) 2016년 5월 25일자 경향신문 만평에서는 한편으로는 기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환유라는 현상으로 이념의 은폐가 성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라는 현상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 나온 4가지 만평의 기호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예리한 은폐현상은 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에코가 말한 수사학적인 배치나 배열 혹은 단어교체를 통한 예리하고 깊숙한 이념적 은폐는 한계가 있는 듯이 보였다. 즉 만평이라는 특징은 항상 그림을 언어와 병합하여 나타나기에 그림으로 인한 은폐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IV. 나오는 말

신문에 게재되는 만평은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어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사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언어텍스트인 기사는 직설적 화법이 주를 이루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만 만평은 그림텍스트와 함께 짧은 언어텍스트의 조합으로 풍자와 해학, 과장과 은유를 통해 대중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전달을 통해 여론형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만평에 대해 국문학, 정치학, 미술학 분야에서는 만화의 역사성, 만화의 기능 등 그 자체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를 연구하는데 치중해온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신문 만평을 기호학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만평이 가진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 차원의 분석이 아니라, 만평 자체가 가진 특성, 즉 풍자와 과장, 은유 등을 이데올로기의 조작, 이데올로기의 폭로 차원에서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만평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배열의 변화와 대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만평에서는 의미소의 은유현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은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만평과 네 번째 만평에서는 한편으로는 기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환유라는 현상으로 이념의 은폐가 성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라는 현상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만평의 선별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풍자와 과장 외에도 에코의 기호학에서 말하는 수사학의 조작 3단계인 이데올로기적 발상·발견, 이데올로기적 배열·배치, 코드의 전환인 표현술과 은유와 환유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분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데올로기의 발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했다. 이는 기호학이 단지 이론적 논의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에코가 강조한 ‘문화체계 내의 은폐된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그 결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비판이자 사회적 실천’의 가치를 찾아보는 의의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형구, 탁진영, 「시사만화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2006, 5~36쪽.
- 권유리, 「시사만화의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 세상읽기』, 소명출판, 2002.
- 김상돈, 「오프 라인과 온 라인 매체의 시사만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운찬, 「제2부 이론과 분석 :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문화론」, 『기호학연구』 vol 10, 한국기호학회, 2001, 196~222쪽.
- 김정연, 박정희, 「시사카툰의 기호적 해석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3, 한국일러스트학회, 2010, 41~51쪽.
- 김진수, 「시사만평에 나타난 정치지도자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서옥란, 「시사만화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인문학연구』 30,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197~223쪽.
-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손세모돌, 「한 칸 만평과 네 칸 시사만화 비교연구」,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5~45쪽.
- 양태영, 「시사만화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성연, 「시사만화의 텍스트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2005, 381~408쪽.
- 이은우, 「한국의 신문시사만화 텍스트구조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Eco, Umberto, 김운찬 옮김, 『일반 기호학 이론』, 열린 책들, 2009.
- Eco, Umberto, 김성도 옮김, 『기호학과 언어 철학』, 열린 책들, 2009.
- Mersch, Dieter, 안정오 옮김, 『에코』, 인간사랑, 2006.

Publication of ideological concealment in
satire cartoons on newspaper :
Based on Umberto Eco's rhetorical method

Lee, Dong-Hyung · An, Cheung-O

Satire cartoons on newspapers connote social critical satire and metaphor. This is in line with the concept of Umberto Eco's 'Concealment of Ideolog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ocial cartoons maintain their function of socio-political criticism based on the assessment of semiotic analysis-'Ideology's Manipulation and Concealment.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s analyze satire cartoons through 'Manipulation and Reveal of Ideology' as Umberto Eco's rhetorical method. This paper broadens the research area of semiology and suggests new analyzing method for satire cartoons.

This research confines research subjects to satire cartoons of The Kyunghyang Shinmun and The JoongAng Ilbo on May 5th, 18th, and 25th in 2016. This is because each company represents progressive journalism and conservative journalism accordingly in Korea. The researchers choose these three days because May 5th and 18th have socially profound meanings: Children's Day and Gwangju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Day. As for May 25th, however, it has another meaning as an ordinary day.

Satire cartoons naturally contain ideological idea · discovery, arrangement · placement, code transferring expression, and metaphor · metonymy. These are argued by Eco's semiology as 3rd level of rhetorical manipulation.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satire cartoons, the researchers find that sharp ideological concealment tend to be expressed rather mildly.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Eco's rhetorical arrangement · placement or sharp ideological concealment by paraphrasing seems to

have certain limitations. As satire cartoons always corporate pictures and languages, those pictures can only display the limited concealmen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deological structure rather than continuously occurring ideology in our society through satire cartoons. The meaning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concealed correlation in cultural system and finding the value of social criticism and practice which are ultimately changing reality.

Keywords : newspaper, satire cartoon, rhetoric, semiology, ideology, metaphor, metonymy

투고일 : 2017. 02. 20.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7.